

유대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가장 불편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육백만명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홀로코스트의 공포-뿔속까지 무서운 이미지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만큼 많은 희생자의 숫자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전세계에 살고 있는 독실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속적인 유대인들의 뇌리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중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쇼아*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 단체들이 이 어두운 역사의 깊이와 의미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찾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것을 쫓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피합니다. 수백만권의 책과 논문들, 수백개의 영화들과 예술적인 작품들이 있지만,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의 경험 중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더 나쁜 경우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괴물이거나 힘이 없고 약한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무신론과 불가지론은 정통 유대교를 훨씬 앞지릅니다. 물론 그에 대해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 홀로코스트가 주 원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유대적 불안을 가장 잘 대변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바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학자이며 많은 저작을 남긴 엘리 위젤(Elie Weisel)입니다. 가슴을 움켜쥐는 회고록 “Night”에서, 위젤은 그 자신과 동료 죄수들이 강제로 봐야만 했던 처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남자 아이가 목에 밧줄이 감겨있는 채 의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신호를 내리자, 군인들이 의자들을 차버렸고 밧줄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떨어지자마자 밧줄이 목을 부러뜨려서 즉시 죽었지만, 작고 야윈 남자 아이는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관중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위젤은 누군가 “하나님은 어디 있나? 하나님은 어디 있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위젤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가

최후까지 숨을 쉬려는 형상처럼 죽어가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그 같은 악함을 내버려둔다는 상상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이 공포들을 견뎌낸 이들에게 저는 깊은 공감을 느끼지만, 위젤이 가슴아프게 묘사한 이 이야기는 저에게 다른 이미지와 의미로 다가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아이를 생각할 때, 저는 다른 한 사람의 유대인, 예수님을 그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는 두 강도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가슴아픈 질문을 한 이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바로 그 질문-어떤 이에게는 고발 -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는가?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고통받는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으며,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혼자서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로 그 때에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돌아서게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홀로코스트는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로 가장 어두운 절망을 끌어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십자가에서 묻기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선지자이자 왕이었던 다윗의 울부짖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시편 22편에서 그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역사에서 바로 그 순간 -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와 함께 버림받았을 때 - 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가장 중심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고 이 놀랍고도 영원한 진리 때문에, 그는 오늘날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시고, 같이 고통받으시며, 도움, 소망, 그리고 의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백만명이 죽었을 때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박해받는 자들 때문에 우시고 계셨으며, 힘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찬 박해자들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치와 폭력의 행위에 고통스러워 하고 계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다지 멋지지도 않고, 만족시킬만한 의기양양한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는 더 힘든 대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인 그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들이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겸손과 의와 평화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지만...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를 무시하는 선택을 하였고, 어떤 때는 그의 존재마저 무시하였습니다. 그 선택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쁜 선택으로 이어지고, 어떤 선택들은 다른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택들의 희생자가 되는데, 이 선택들은 우리의 것일 수도 있고, 나찌의 예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의 제3제국의 악함이 번성할 수 있도록 허락한, 역사적인 선택들이 있습니다. 실제상황을 외면하도록, 극악무도한 행위들에 대한 소문들이 사실이었는지 전혀 돌아보지 않도록, "다른 이들의 사정일 뿐"이라며 같은 인간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도록 했던 선택들 - 이 모든 선택들이 입에 담기 힘든 공포의 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가인처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어깨를 움츠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타락한 선택들에 대하여 통곡하시지만, 그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단 한 번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들 중에 계셨습니다. 그는 열차 안에서, 게토에서, 수용소에서, 네, 그리고 가스실과 소각로에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받는 사람들과 여전히 오늘날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금년의 부활주일은 4월 20일이며, 움 하 쇼아, 즉, 홀로코스트 기념일은 바로 한 주 후인 4월 27일입니다. 이 두 날들이 서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아는 그의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으시며, 오직 그만이 인간의 고통을 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드십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강력한 진리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인도해야 합니다. 홀로코스트는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로 가장 어두운 절망을 끌어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대인 형제자매들은, 나찌 정부가 모든 인류에게 행한 끔찍한 고통들이, 히틀러가 간교하게 속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의 삶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아를 보낼만큼 그들을 돌보셨으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아 자신께서 예언하시고 수백년전에 다윗왕이 예언한 것처럼,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서러움과 눈물이 그칠 것을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편 30:5)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면서, 그 소망, 그 기쁨, 예수님 안의 그 놀라운 새 삶을 줄 때, 더 이상의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재앙을 뜻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보통 세계 2차대전의 홀로코스트를 지칭한다.

**위절의 이야기는 그들이 범죄자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세 명의 사형과 아이의 부분적인 죄없음이 갈보리를 생각나게 했다는 뜻이다.



저부 소식

안식일에 일할 때

Arielle Randle이 시카고에서 전합니다:

제 남편 데이비드와 저는 Jews for Jesus 스태프인 Isian Ascher와 Shmuly Abramson, 그리고 제 여자 형제인 시모네, 그리고 다른 젊은 믿는 유대인인 틱짜와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동네 회당을 방문할 때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끼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모임을 기대했지만, 대신에 저희가 그 회당에 모인 사람 중 삼분의 일이나 차지했으며, 심지어 토론식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줄 때 만났던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저와 데이비드가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회당을 방문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려고 회당에 온 것입니다!

파샤(그 주 예배 때 읽어야 하는 성경구절)에 대한 토론 중에 어떤 나이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가 얼마나 권위에 반항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를 얼마나 반항적으로 여길지,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수가 무엇을 믿거나 어떤 유대인이 될지 말해주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모두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정하고 난 다음, 그들은 정말 친절했으며, 우리에게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도와줄 것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Shmuly에게도 다시 와서 그들의 행사에서 설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유대인 공동체의 사람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열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그들이 주최한 영화감상 행사에 갈 계획입니다.

예배 후, 우리는 우리 아파트로 돌아와서 성대한 안식일 저녁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가 거리에서 만났던 그 사람과,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오랫동안 같이 하지 못했던 이와도 같이 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 그는 데이비드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기쁜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삽의 새로운 노래

텔아비브

Nataly Bearshtein



몇 년 전에 시드니에서 우리를 방문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전합니다: 몇 개월 전, 제 남편 알렉스와 저는, 아삽이라는 30대의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콘서트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를 만났습니다. 아삽은 우리에게 이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전능한 힘이 있음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변호사의 케이스"라는 책과 신약 성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알렉스는 간증을 했고 우리는 아삽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와 두 달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게브 -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도 캠페인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화로 계속 연락을 했고, 캠페인 후에 아삽은 그 책 두 권을 다 읽었고 우리를 정말로 다시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억하던 방향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얻으며 그것을 기뻐하던,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님, 그의 메시아가 우리 죄를 가져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있는 이 시간 동안 그는 눈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놀라운 순간들에 동참하고 사람들이 하늘왕국에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가명

착한 유대인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분으로: 교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시드니. Rahel Landrum이 전합니다: 제 남편 마크와 저는 카렌이라는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크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카렌의 친구가 그녀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카렌은 예배 후에 우리에게서 더 많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한 시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크와 저는 번갈아가며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녀는 예수아가 그냥 좋은 유대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많은 발전을 했고, 최근에 예수아는 단지 인간인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임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 제가 예수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나눈 후에, 그녀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실수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이(가능하면 배상을 하고) 우

리 죄에 대한 댓가를 완전히 치르는 것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죄에 대한 댓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댓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아를 통해 가진 용서의 선물은 바로 그가 우리의 댓가를 지불함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사랑, 빛, 좋은 것들, 따듯함, 그의 가족이 되는 것, 받아들여짐 - 이들은 우리 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히 좋은 것들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카렌은 잠시 생각하더니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예수아가 그녀의 죄를 위해 댓가를 지불한 것과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스러운 탈출

by Stewart Weinisch

그 어떤 새롭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시작점이 있다는 말이 있다. 정말 그 말을 실감한 것은, 어느 나이 많은 유대인 남자가 우리 맨하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카톨릭 신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였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어원은 그가 있던 카톨릭 교회에서, 어느 유대인 수도사가 말해준 이를 믿고 싶다고 설명했다 - 그와 그의 누나가 나찌로부터 숨어있던 그 교회말이다.

어원이 어렸을 때, 나찌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1942년 바르샤바의 유대인 강제 입주 구역에 밀어넣었다. 그는 누나 소니아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고 그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와 소니아는 어떤 교회 안으로 피신했다; 수도사는 유대인이었으며 이디쉬어로 예수(예수)에 대해 설교했다. 그는 또한 다른 많은 유대인들을 교회를 통해 보호해주었다.

어원이 12살이었을 때, 나찌들은 그 교회를 폭격했지만, 폭탄은 불발로 끝났다. 나찌 친위대는 그 다음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물론 그 다음날도 경보는 계속해서 울렸고, 모든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도망쳤다. 사실 허위 경보였다. 그러나 어원과 그의 누나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수도사가 무자비하게 사살되는 것을 보았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숨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어원과 그의 누나는 열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오직 몇 방울의 물로 버틴 적이 있다. 지하 폐수관 안에서 나흘을 보낸 적도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

을 숨겨주고 보호했다. 마침내, 그들을 보호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자유의 길로 향하는 지도를 주었다. 그들은 숲을 통과하여 한 길을 주옥 따라가서 철로길을 만났다. 철로길 반대편에 바로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 들켜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 밑으로 뛰어 들어가야 했다. 가는 길 도중, 그들은 같은 방법으로 탈출하려는 다른 무리로부터 떨어진 조그만 아이를 만났다. 소니아와 어원은 그 아이와 같이 갔다.

그들이 철로길에 다다랐을 때, 소니아가 먼저 뛰어 들었고 무사히 철로길을 건넜다. 어원이 그 다음에 갔는데, 철로길 반쯤 갔을 때 그는 멈춰서, 그 아이에게 빨리 오지 않으면 나찌들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그 아이는 기차 밑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기차에 치였고 어원의 품에서 죽고 말았다. 어원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사히 건너는 것 밖에 없었다. 그와 소니아는 탈출했고, 1949년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50년대와 60년대에 어원은 모피상인인 삼촌 밑에서 일했는데, 바로 내가 70년대에 그 분 밑에서 일한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를 같은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었다.

어원이 그 유대인 수도사가 자기에게 말해준 이를 믿고 싶다고 말하자, 나는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 말해주었다. "네, 바로 같은 분이예요"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알고 있었다. 그가 복음을 이해한 것

을 확인한 후에, 나는 어원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직접 그를 방문했다. 어원은 많은 홀로코스트 단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고, 나는 그를 위하여 수많은 전화를 걸었지만, 그 어느 한 사람도 그에게로 와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보다도, 어원의 가장 큰 갈망은 바로 경배의 집에서 예수(예수)에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다.

슬프게도, 그 후 몇 달 동안 어원은 병원은 계속 드나들었고, 나는 그와 연락이 끊어졌다. 나는 많은 전화를 걸었고, 개인적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어원의 실종을 조사한 뉴욕시의 고위 사회복지사와 연락했지만, 그 어느 것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어원의 생존과 구원의 이야기가 수백만명에게 전해졌으면 하고 바랬다 -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나는 어원이 그 때 충분히 건강해서, 그가 원했던 것처럼 근처 교회에 가서 예수(예수)에게 찬양을 불렀었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바로 나찌에게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구해주신 바로 그 분에게.

*놀랍게도, 바르샤바 강제 입주 구역 안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꽤 많았다 -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 합쳐서.

퍼
진
서
사

G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

호주전화번호: +61.2.9388.0559

이메일: mail@jewsforjesus.org.au

홈페이지: jewsforjesus.org.au

Vol. 17 No.4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영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호주NAB BSB 082.067

계좌번호 46.072.8465

뉴질랜드BNZ.BSB 020.484

계좌번호 010.6273

싱가포르OCBC 예금주: Jews For Jesus

계좌번호581.252.897.001

PayPal,

로도후원을받습니다.

신용카드그리고TT

twitter

facebook

Donate now with...

PayPal